



동북아의 항공물류를 선점하라! 대한항공 vs FedEx코리아

금년 들어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수출증가율 둔화 등으로 대한항공의 한국발 항공화물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페덱스가 미국행 직항노선을 주 5회로 증편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로써, 국제항공화물 1위 자리를 수성하려는 대한항공에게 도전장을 내민 페덱스 코리아의 한판승부가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에 인도 첸나이와 미국 시애틀에 화물노선을 개선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마이애미와 스톡홀름 노선 취항 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신규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의 국제항공화물 노선은 현재 총 24국 41개 도시.

대한항공은 지난 8월 22일 미 남부의 대표적인 항공화물 허브이자, 중남미 항공화물 시장의 관문인 마이애미에 주 2회(화,토) 정기 화물 노선을 개설했다. 마이애미는 아열대성 기후와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한 미 남부의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미국 남부행 화물과 중남미행 항공화물의 허브로서 항공화물 물동량이 많은 도시이다.

주요 수송 품목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류 및 농수산물 등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마이애미 취항을 계기로 란카고, 씨에로스 델 페루항공 등 중남미 지역 항공사들과의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콜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 마이애미에 이어 8월 24일부터는 인천~스톡홀름에 정기 화물편을 주 2회(목, 일) 취항했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로 휴대전화, 전자제품, 통신장비 및 자동차 부품 등의 물동량이 많은 도시.

대한항공은 기존 코펜하겐, 오슬로 노선에 이어 이번 인천~스톡홀름 노선 개설로 스칸디나비아 3국 모두를 아우르는 화물노선망을 갖추게 되어 북유럽 항공화물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톡홀름 노선의 화물전용기 운항을 통해 스웨

덴 외에도 핀란드, 러시아 서부지역 등에 대해 보다 편리한 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의 뒤를 이어 동북아 물류상공을 확보하고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업체가 페덱스코리아.

FedEx코리아는 지난 8월 29일부터 미국 직항 항공 노선을 주5회 증편을 통해 새로 한국지사장으로 부임한 채은미 지사장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줬다.

이번 증편은 FedEx 전용기인 MD-11기를 통해 인천공항과 미국 앵커리지공항을 주 5회 운항하게 되며 주당 800,000파운드(약 360톤)의 물량을 운송하게 된다.

FedEx의 이번 증편은 대미 교역이 활발한 국내 수출입 업계의 증대되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증편을 통해 FedEx가 세계 물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국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점유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FedEx북태평양 마사미치 우지이에(Masamichi Ujiie) 사장은 "현재 한국의 3번째로 큰 무역 교역 대상국은 미국으로 한국기업들의 세계시장진출 붐으로 무역교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한 특송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FedEx의 한미 직항 노선 증편은 이러한 한국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FedEx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국 물류 산업 발전 및 나아가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류**

